

혁공동 정치국 2018. 1. 1. 어필

세계전쟁을 세계혁명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학생자치회를 되살려 총파업과 국제연대로 개헌 저지를

천황제 타도, 올림픽 분쇄에

시작하며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 -
---인류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100주년의 2017년,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과 혁공동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투쟁
해 왔다. 그 가장 대중적인 실천이 10월 중의원 의원 선거이며, 11·5 전국노동자집회·
개헌저지 1만 명 대행진이였다.

전쟁, 빈곤, 인간적 공동성의 파괴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쟁도 착취도 억압도 차별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답은 노동자의 투쟁 속에 있다.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것, 노동자 민중이 국경
을 넘어 단결하는 것, 노동자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노
동자 자신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가 주인공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8년)의 엄청난 참화를 앞에 두고 레닌은, “전쟁 말고는 살아남을 수 없
는 제국주의·자본주의는 수명이 다하였다. 인민을 서로 죽이는 전장에 몰아넣는 자국 정
부를 타도하는 것만이 전쟁을 막는 길이다. 노동자 민중의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총파업이
전쟁을 막는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레닌과 러시아의 노동자 민중은 혁명에 승리하고,
세계 전쟁을 끝냈다. 이 레닌의 투쟁에서 배우고 이어가자.

2018년은 역사를 결정하는 결전의 해이다. 아베 정권은 미제 트럼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침략전쟁에의 참전과 헌법 개악을 노리고, 동시에 모든 노동자를 총 비정규직
화하여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리는 「노동형태 개혁」을 외치며 대량 해고=모가지와
극한적인 노동 강화·임금 인하의 공격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신헌법
시행」을 선언하고, 19년의 천황 퇴위, 신 천황 즉위식도 이용하여 노동운동과 반전운동
을 깨부수려하고 있다. 개헌·전쟁과 천황제와 올림픽은 일체의 공격이며, 일본을 「전쟁
하는 나라」로 바꾸는 공격이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부터 20년까지의 투쟁이 중요한 고비다.

전쟁이나 혁명이나. 혁공동은 이 세계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창당 이후 60년의 축적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당」 「파업으로 투쟁하는 당」 「세계혁명에 승리하는 당」, 그리고 「청년·학생의 당」으로 크게 자기 변혁을 실행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 인민 여러분, 청년노동자·학생 여러분.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타도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의 실현에 혁공동-중핵파에 결집하여 다함께 싸우자.

제 1 장 중의원 선거와 11 월 집회에서 시작한 현대 혁명 승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1) 청년 노동자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나라에 혁명을!」이라는 외침

지난해 9 월 말, 아베 신조 총리는 「국난 돌파」를 외치며 중의원을 해산하고, 10 월 22 일 총선을 선언했다. 아베는 「개헌·전쟁·공모죄」 「모리토모, 가계 의욕」 「노동법 개악과 빈곤」 등에 대한 노동자 인민의 분노에 몰려서 쿠데타적으로 총선에 나섰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배외주의적 비난의 홍수 속에서, 무력한 야당에 힘입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연명했다. 그러나 이는 「아베·자민당의 승리」는 전혀 아니다. 비례대표 득표 수(1854 만 표)에서는,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패하여 야당으로 몰락한 09 년 총선 때(1881 만 표)보다 줄었다. 자민당에의 분노를 진정으로 구현하는 정당이 부재하였다는 이유에 의한 「자민압승」이었다.

혁공동은 도쿄 8 구(스기나미구)에서 총선에 출마한 사이토 이쿠마 후보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더하여 11·5 노동자 집회에 1 만 명 결집에 총력 투쟁하였다. 노동자의 투쟁 속에 승리의 전망이 있다고 전 사회에 외치고, 분노를 구체적인 운동=힘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였다.

사이토 이쿠마 후보는 선거전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인간이 살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작아 보여도, 아무리 부당하게 취급되어도, 인간의 노동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더 정치에 관여하여야 할 이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 조건은 노동자에게 그런 시간도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혁명입니다. 노예로 취급되고 있는 인간이 『자부심』을 되찾을 방법은 평화가 아니라 반란입니다. 진짜로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자는 단결했을 때 정말 강합니다. 이 사회의 근본 문제는 『노동문제』입니다. 꼭 함께 투쟁합시다!

노동자의 자부심, 노동자의 단결을 되살리는 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거전의 최대 획득 목표였다.

선거전 과정에서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빠르게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30년 가까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던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렌고(聯合 686만명)이, 민진당과 함께 분열·붕괴를 시작했다. 중의원 선거 직전 극우의 도쿄도지사·코이케 유리코는 민진당 대표인 마에하라 세이지와 연합 회장의 코즈리 키오를 묶어서 「희망의 당」을 만들어 렌고를 통제로 개헌 세력화를 꾀하였지만 대 좌파, 희망의 당은 참패했다. 렌고는 「자민지지」 「희망지지」 「입헌 민주당지지」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코이케도 마에하라도 코즈도 노동자의 분노를 만만하게 봐서 제 무덤을 팠다.

렌고 지배의 붕괴로 계급적 노동운동이 일본 노동운동의 주류=다수파로 비약하는 기회가 왔다. 중의원선거 투쟁과 결합하여 10월 13일에 도로도쿄가 수도 한복판에서 파업에 쫓기하였고, 10월 21일 도로미토가 JR 조반선 연장 저지의 파업과 후쿠시마현 토미오카초 현지투쟁에 나섰고, JR 동일본의 도미타 테츠로 사장과 기념식을 직격했다. JR의 노동운동(=국철투쟁)이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전망을 제시했다. 총선과 노동운동을 하나로 하여 투쟁했다.

(2) 트럼프 방일을 직격한 노동자대집회와 도심데모

중의원 선거에 이어 11·5 노동자집회 개헌저지 1만명 대행진이 미제 트럼프 방일·미일 정상회담 분쇄투쟁으로 일어서 4,800명의 결집으로 크게 고양되었다.

11·5는 첫째, 전쟁으로 치닫는 국가 권력과 격돌이었다. 「대북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가기로 완전히 일치했다」(아베)----미일 정상회담은 한반도 침략전쟁 돌입의 의사를 드러냈다. 2만 1천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수도를 계엄체제로 만들었다. 이를 쳐부수고 개헌반대의 도심의 큰 데모를 관철했다.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기축으로 개헌·한반도 침략전쟁을 저지할 결전의 첫발을 내디뎠다.

둘째, 1987년의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30년, 국철투쟁의 모든 성과를 발휘했다. 도로총연합(動勞總連合)의 가을 투쟁이 JR 자본을 몰아세우고 있다. 87년을 「제1의 분할 민영화」, 99년부터 외주화·강제과건을 「제2의 분할 민영화」라 한다면, 지금 JR 현장에서는 「제3의 분할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다. 「수평분업의 심도화」라고 칭하는 차원이 다른 외주화 공격이다. 철도 업무를 수십 개의 기업에 토막토막 분사화하고, JR 본사는 지주회사가 되어 이익 우선으로 자회사·노동자를 지배한다. 수평분업의 외주화에 의한 강제 파견(배전)이 강제 전적으로 바뀌는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JR 노동자의 단결과 자부심을 파괴하고 도로총연합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도로치바와 도로총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어 투쟁하고, 외주화에 의한 안전파괴에 원칙적 반격을 가하여 승리했다. JR은 일체의 「심장」이라고 하는 기간기업이다. 그 현장에서 노동자가 부르주아지 중추를 날려버리는 투쟁을 벌여나가며 전체 노동자에게 총궐기를 호소하고 있다.

셋째, 아베의 「노동형태 개혁」=노동법제 대 개혁 공격에 반격을 시작했다. 「노동형태 개혁」 「생산성 혁명」의 핵심은, 전체 산업에서 민영화·외주화·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노동자를 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몰아넣고 쥐어짜는데 있다. 이 공격은 또 노동계약법상의 무기전환 기간이 18년 3월 말로 육박하는 가운데 법을 역으로 이용하여 유기고용 노동자의 고용중지=대량해고의 공격과도 하나다. 렌고가 굴복함으로써 공격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단결하여 직장에서 파업으로 일어서면 반드시 분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속에서 분노의 궐기가 속속 일어나면서 새로운 단결이 확대되는 정세에 돌입했다.

넷째, 간사이나마콘지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칸사이지구 레미콘지부), 미나토고도(전국금속기계노조항만합동), 도로치바라는 일본에서 가장 전투적·원칙적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이 렌고의 분열·붕괴 상황에서 노동자의 분노와 결합하여 새로운 결집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3조합이 매년 11월 노동자집회를 20년간 진행해오고 있는 것은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파업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전 산별에서 되살려 갈 때가 왔다. 12월 칸나마 지부의 파업 돌입과, 이와 연대투쟁으로의 12·17 히비야집회·긴자데모는 그 첫걸음이 됐다.

다섯째, 노동자의 국경을 초월한 단결이 점점 발전하고, 재작년에 이어 신자유주의 분쇄와 전쟁 저지를 내건 도쿄와 서울을 잇는 국제공동행동 투쟁이었다. 11·5 집회에는 한국, 미국, 독일의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중국, 터키, 브라질 등에서의 열렬한 연대 메시지가 전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한 「촛불 혁명」의 중심에서 싸운 한국 민주노총(민노총)과의 단결은, 한반도침략전쟁을 저지하는 최대의 힘이다. 이 국제연대는 서울에서 5만 명이 결집한 11·12 노동자대회의 도로치바 방한단의 합류로 강화되었다. 이 대회에서의 「노동조합이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외침은 전 세계 노동자에의 혁명의 요청이었다.

도로치바가 03년부터 쌓아 온 신자유주의와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국제연대를 토대로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을 위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목표로 싸울 때가 왔다. 작년 7월 말 국제연대공동행동연구소 설립과 10·1 러시아혁명 100주년 집회 개최는 그 출발점이다. 이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자.

여섯째, 11·5 노동자집회는 동시에 개헌저지 1만 명 대행진의 집회·데모로 투쟁하였고, 아베 정권의 개헌·전쟁 공격과 대결하여 투쟁하여 온 제 세력·제 단체가 노조의 투쟁을 중심축으로 하여 결합하고 굳게 단결하여 나가는 자리였다. 일체의 전쟁 공격, 핵무장 정책과 최전선에서 격돌하면서 일제 권력에 의한 비열한 투쟁 압살 책동을 무찌르고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산리즈카, 후쿠시마, 오키나와를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 큰 힘으로 바꾸어 가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전학련 운동의 재건에

전국학생운동은 9월 전학련 대회에서의 공고한 일치와 단결을 발판으로 사이트 이쿠마 위원장을 내세운 10월 중의원 선거, 11·5 노동자 집회, 그리고 교토대학 2 학생 탄압을 분쇄하고 탈환한 투쟁에 전력으로 공격해 나갔다. 선거투쟁의 중심을 담당하는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학 캠퍼스를 무대로 치안탄압을 분쇄하여 갔다. 이러한 투쟁의 모든 것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 11·5의 노동자 집회 개헌저지 1만명 대행진의 성공을 가져왔다.

처분·체포와 투쟁하는 교토대 투쟁을 「신자유주의 대학과의 최전선의 대결점」으로 끌어올려 투쟁하여 온 것이 중요하다. 교토 대학 당국, 야마기와 주이치 총장 체제가 교토대 학생에게 일체의 자유와 자치를 빼앗고, 단결을 파괴하고, 경찰 권력과 유착하여 탄압에 손을 더럽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에 전 교토대생·전국 학생이 쫓겨갈 가능성과 전망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전학련은 교토대 투쟁을 수도권-전국에 파급·확대시키고 교토대학 투쟁을 기축으로 전학련 운동을 재건하는 현실성을 손에 넣었다.

또 300만 학생-1천만 노동자 인민을 위한 「전진 채널」의 개설 및 『전진』 고교생 특집호 등 선전·선동의 변혁을 향한 의욕적·창조적 도전이 전학련의 힘으로 속속 실행되고 있다.

(3) 직장에 소용돌이치는 분노를 조직화하여 노동자의 쫓겨나기를 이루어내자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계급적 노동운동이 전진하고, 선진적인 노동자 민중과 결합하며, 청년 노동자들의 당으로 결집 등 중요한 승리가 열렸다. 이 지평을 이어 1천만 명 규모의 노동자 인민과 참으로 결합할 수 있는 선전·선동, 직장·캠퍼스에 소용돌이치는 분노를 조직화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학생자치회를 만드는 것,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혁명가 집단을 만들어 기성 정당을 뛰어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1월 노동자 집회가 1만 명을

넘어 수만, 10 만, 100 만 명 규모로 발전할 때 참으로 사회는 바꿀 수 있다. 전국 및 전 세계 동지에게 희망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더욱더 직장·캠퍼스의 동료에게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어디까지나 단결에 의거해서 자본·당국과 철저히 투쟁하는 것. 「1 천만 노동자 인민에 통용되는 언어」를 조성하는 것. 현장의 분노를 개헌·전쟁저지 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1 월 집회의 4,800 명을 천 배 만 배로 늘려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축으로 단결한 전체 노동자 인민의 압도적인 대열을 이루자.

그를 위해서 도로치바와 도로미토의 투쟁에서 필사적으로 배우자. 도로치바의 타나카 야스히로 위원장은 국철투쟁 전국운동 편 『노동운동의 변혁을 목표로』에서 「도로치바의 교훈」으로서 이하의 여덟 가지를 들고 있다.

「도로치바의 교훈」

❶ 아무리 작은 노동조합이라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이라는 관점을 잊지 말 것. ❷ 자본과 노동자는 비화해적인 관계에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원점을 관철하는 것. ❸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시대인식을 항상 직장 노동자와 함께 생각하는 것. ❹ 투쟁노선·방침만으로 직장 전체는 단결할 수 없다. 「의리와 인정」이 필요하다. ❺ 전망은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투쟁 속에서 열어 나가는 것이다. ❻ 문제는 지도부다.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차서 앞장서 있으면 노동자는 절대 단결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❼ 자본과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조직화란 자신이 바뀌는 것에서 동료가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❽로서 계급적인 노동운동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특별한 임무로서 전쟁에 절대 반대하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자국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 정당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로치바의 단결은 1980 년대의 국철 분할·민영화와의 투쟁에서 최고로 발휘됐다. 당시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후에 「고구로(국철 노동조합)가 무너지면 총평도 붕괴하는 것을 의식하고 했다.」 「(노동운동을 해체하여) 방을 깨끗하게 하고, 상단에 훌륭한 헌법을 안치한다.」라고 공언한 것처럼, 지배계급은 당시 최강이라던 국철노동운동(그 중심에 국철노동조합=고구로가 있었다.)을 분할·민영화로 해체, 일본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을 분쇄하여 개헌·전쟁으로 돌진하려 했다. 실제 당시 내셔널 센터인 총평은 해산되고, 어용 노동조합 운동인 렌고가 태어났다. 이러한 국가의 총력을 기울인 공격의 침병 역할을 한 것

이 도로본부(현 JR 총련)카쿠마루다. 그리고 이 공격과 유일하게 대결하고, 두 번의 파업으로 투쟁하였던 것이 도로치바다.

도로치바는 단결을 지켜내고 「제 2의 분할 민영화」인 외주화저지 투쟁에도 이겨나가며 「제 3의 분할 민영화」와 격돌하고 있다. 「제 3의 분할 민영화」는 JR 노동자를 비정규직·전적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선을 버리고, 연선 주민의 교통수단을 빼앗고, 지방도시와 주민의 생활을 파괴하는 공격이다. 도로치바는 지역 주민과 공동투쟁으로 반격하여 노동자계급 의식을 강화하고 전 인민적 결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도로미토의 피폭노동거부 투쟁은 피폭노동의 강제에 대해서 철도 노동자로서 쫓겨하여 전국 원전반대 투쟁, 재해지의 투쟁, 원전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를 형성했다. 노동조합이 지역의 노동자 인민의 결집축으로 일체가 되어 피폭노동거부 투쟁, 후쿠시마 투쟁, 원전반대 투쟁을 발전시키는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도로총연합은 후쿠시마(코리야마 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확대되고 있다.

도로치바·도로미토-도로총연합의 투쟁을 관철하는게 「노동의 탈환」론이다. 인간 활동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게 노동이다. 노동에 의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사회는 성립된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목숨보다 돈」의 자본의 논리로 노동을 폄훼하고 노동자의 자부심을 빼앗고 분단시키고 인간적·사회적 공동성을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는 계급으로서 단결하여 자본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고 투쟁 가운데 노동을 인간적 노동으로 탈환하는 투쟁을 시작하여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비약한다. 그것은 한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의 지배를 뒤엎고 노동자 권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립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노동운동도, 혁명도 인간의 사업이다. 「노동의 탈환」론을 직장에서의 투쟁의 무기로 삼아 개개인의 동지를 결정적인 투쟁의 주체로 삼는 것에서 단결은 확대되어 간다. 이 투쟁을 모든 직장에서 전력으로 전개하자.

(4) 공모죄 공격과 정면 대결하여 혁공동의 존재와 투쟁을 보이다

2017년의 투쟁은 국가 권력에 따른 극심한 치안 탄압을 쳐부수고 전진했다. 경찰 권력은 11~12월에만 10명을 날조 체포했다.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면장 부실 기재」나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조작이며, 체포를 위한 체포, 탄압을 위한 탄압이다. 전쟁 국가화 공격의 일환으로 혁명당과 투쟁하는 노동운동·학생운동을 부수기 위해 「치안유지법의 재래」로서 공모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비합법·비공공연의 당」의 혁공동의 파괴다.

하지만 구속된 동지의 완전 목비·비전향의 투쟁을 축으로 한 혁공동과 전체 인민의 분노의 총궐기는 탄압을 차례로 파탄시키고 일제 권력을 더 몰아붙이고 있다. 그 선두에 71년 시부야 폭동 투쟁으로 날조 탄압과 불굴의 투쟁으로 옥중 43년의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와, 46년의 수배 공격과 투쟁을 계속한 오사카 마사아키 동지의 투쟁이 있다.

지난해 5월 오사카 동지의 체포는 6월 15일 공모죄 성립강행 직전에 그와 일체로 실행된 대 탄압이었다. 일제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을 무너뜨리는 것과 혁공동의 괴멸을 노리며 전 체중을 걸고 달려들었다. 공안경찰의, 언론을 총 동원한 「중핵파=테러리스트 집단」 대 캠페인은 당과 인민 총궐기에 의해서 타파되었고, 역으로 혁공동의 존재와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 인민 앞에 힘차게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탄압과의 투쟁은 근본적·인간적 분노를 이끌어 내고 「1천만 인과의 결합」의 결정적인 고리가 되었다. 17년의 승리를 이어 공모죄를 현장에서의 투쟁으로 완전히 분쇄하자.

제 2 장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 세계전쟁을 실제로 저지하는 힘이다

한반도침략전쟁의 절박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침략전쟁=핵전쟁을 진심으로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일체로 11월 미 해군 핵항모 3척이 동해에 동시 전개하여 해상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벌였다. 게다가 12월에는 한미합동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한미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일제 선제공격 훈련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 포고」인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이다.

북한은 9월 3일 「수폭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11월 29일 신형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이 절망적인 군사적 대응을 구실로 제국주의는 전쟁에의 압력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11월 20일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가」로 재 지정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된다.」(헤일리 유엔대사)는 등의 미제 중심에서 전쟁 발동을 부추기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다.

미제와 일체로 아베정권은 대북 배외주의를 부추겨 한반도전쟁 참전의 길에 뛰어들고 있다. 11월 22일에는 미사일 탄착=국민보호법의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한 첫 훈련을 나가사키현 운젠시에서 실행했다. 과거 전시 중의 「방공 훈련」 그 자체이며, 국가총동원체제의 마련이다. 이러한 침략 훈련 강화가 병사를 피폐하게 하고, 미군·자위대에서 사고가 속발하고 있다.

한반도침략전쟁의 목적은 박근혜 타도로 시작된 한국 노동자 인민의 투쟁을 압살하는데

있다.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투쟁은 한반도 남북분단 타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일본 혁명-중국 혁명-세계 혁명으로 발전한다. 혁명에 대한 공포로 제국주의는 점점 전쟁 발동에 뛰어 들고 있다.

한국전쟁(1950~53년)이 그랬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혁명 정세에 돌입했다. 조선 인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 국가 건설에 나섰다. 그 투쟁이 일본의 전후 혁명, 중국 혁명의 물결과 결합하였다면 동아시아는 세계 혁명의 거대한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것을 「북위 38선」에 따른 남북 분할과 한국전쟁에 따른 고정화로 무너뜨린 것이 미제와 소련 스탈린주의다.

이후 한반도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분할 지배 하의, 특히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이 계속되었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것도 노동자계급 투쟁이었다. 1995년 민주노총 결성은 조선혁명의 계급적 주체의 등장을 의미했다. 한국 노동자계급 투쟁은 박근혜 타도를 넘어 드디어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제국주의 지배 자체를 뒤엎을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동아시아야말로 오늘날 세계전쟁 임박 정세의 최대 쟁점이다.

「기축국」 미제의 붕괴

한반도 침략전쟁의 급격한 임박을 이끌어 낸 것은 전후 체제의 기축이었던 미제가 마침내 체제적 파탄과 붕괴를 시작한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트럼프는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제 스스로 만들어 낸 전후 세계체제를 모두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미국 퍼스트」를 내걸고 생존의 쟁탈전을 격화시켰고 실제 전쟁발동으로 치닫고 있다.

그 배경은 07~08년에 시작한 세계 대공황이 본질적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에 있다. 초 금융완화 정책의 계속에 의한 인위적인 거품경제의 창출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겉으로는 겨우 돌아가고 있지만, 그 실태는 「과잉 자본 과잉 생산력」 상태에 매달린 채이다. 거품이 붕괴하면 한꺼번에 08년 리만 쇼크 이상의 대 붕괴가 일어난다. 이 가운데에 치열한 보호주의·블록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몰락하여 내적 힘을 잃은 미제가 자국 금융자본·대 독점기업의 이익 확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무분별한 제국주의적 강도정책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현실에서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전쟁 발동의 획책에 이어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에 뛰어 들고 있다. 12월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여 팔레스타인 인민, 전 무슬림 인민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제 한반도, 중동, 우크라이나를 초점으로 세계대전 차원의 큰 전쟁의 위기가 임박하였다.

트럼프는 「러시아 의혹」으로 정권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쟁 이외에 연명의 길이 막혔다. 그리고 트럼프 이상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최대의 위기에 처한 것이 일제·아베정권이다. 트럼프와 함께 세계전쟁의 방화범으로 등장한 아베에 대하여 만신의 분노를 분출하여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투쟁으로 전쟁을 저지하고 트럼프와 아베를 타도하자.

노동자계급의 총 반란

자본주의는 생명력을 잃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혁명의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EU(유럽 연합)은 정치적 대격동에 들어갔다. 독일에서는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메르켈이 조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백이 이어져 사상 유례없는 사태이다. 근처에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해체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의 폭발이 있다. 노동자 자신의 당이 등장하지 못한 틈을 뚫고 극우 정당이 등장했지만 그에 대한 항의 시위도 폭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5월 대선을 치르고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마쿠롱으로부터 급속한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9월 12일 노동법개악 반대행동에는 전국에서 40만 명이 참가. 도시교통, 항공, 방송, 대학생·고교생 등이 파업에 들어갔다.

영국에서는 6월 하원 선거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 미달로 메이 정권은 「시체」가 되었다. 재작년의 국민투표에 의한 EU 탈퇴 결정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하는 노동자계급의 반란이다.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 독립 문제」가 들끓고 있지만 「노동력 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노동법 개악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비정규직 격증, 노동법 개악, 민영화와 긴축 정책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계급 전쟁이 치열화하고 광범위한 분노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난민 문제」에 대한 지배 계급의 배외주의 선동과도 노동자계급은 대결하고 있다. 노동자가 분단·배척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 단결할 때 비로소 「난민 문제」의 현실적 해결의 전망이 열린다. 전쟁—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가주의·배외주의와 투쟁하여 민족과 국경을 넘어 단결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거품 붕괴가 임박한 중국에서는 공산당 스탈린주의 정권의 억압과 투쟁하여 연일 공장 폐쇄나 공장 이전, 해고, 임금 인하, 노동 강화에 반대하는 파업 등 노동쟁의가 격발하고 있다. 그 투쟁의 선두에 철도 노동자가 서있다.

국제 연대가 새로운 단계에

국제연대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 노동자 인민의 투쟁은 박근혜를 타도하고 감옥에 보낸데 그치지 않고 즉각 「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내세운 투쟁에 들어갔다. 「촛불 혁명」에서 발탁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부르주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가운데 자본의 지배를 뒤집는 「제 2의 혁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1월 집회에서 제시된 국제적 단결은 자본주의의 최말기의 연명 형태인 신자본주의의 파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자본주의는 자본의 착취와 이윤 추구의 「무한의 자유」를 요구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철저히 해체한다. 하지만 신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자본의 전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 내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지금 같은 공격에 직면했고, 그래서 빠르게 국경을 초월한 단결을 추구하고 강화하고 있다.

도로치바가 개척한 국제연대에서 배우고, 세계 혁명을 목표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만들어 내자. 「국제연대공동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모든 투쟁에 인터내셔널리즘을 관철하여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를 타도하는 세계 혁명의 진형을 전 세계에 만들어 내자.

제 3 장 천황제 공격의 반혁명적 본질과 일제 · 아베 정권의 절망적 위기

아베 정권은 한국전쟁 참전을 노리고 북한의 대부분과 중국 연안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선언했다. 이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의미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과 함께 「전수 방위」를 내세워온 일제의 군사정책의 원리적 전환이다.

이 공격은 헌법 해석변경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 9조를 파괴하고 국가와 사회를 「전쟁하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아베가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9조 1항, 2항을 남기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이든, 자민당이 12년 발표한 「헌법 개정 초안」의 「국방군 보유의 명기」 안이든 어쨌든 9조의 완전한 파괴 · 해체가 핵심이다. 18년부터 19년, 20년은 이 개헌공격과 전체 노동자 인민의 죽느냐 사느냐를 건 대결전이 된다.

아베는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새 헌법 시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망은 서지 않아 몰리고 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내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사」(정부 관

계자 요미우리신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는 한반도전쟁 사태 등과 함께 천황의 양위 의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19년 7월 참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묶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천황제와 개헌은 일체

이런 가운데 정부는 「헌 천황 아키히토의 퇴위를 19년 4월 30일」로 각의 결정하고 아베는 다음 5월 1일에 황태자 나루히토의 새 천황 즉위로 개헌의 실시를 표명했다. 「(퇴위와 즉위가)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아무 탈 없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한다.」(아베)--- 여기에 천황제 공격의 본질이 응축되어 있다. 천황제 존속을 위해서 의식을 활용하고 「조용한 환경을」이라고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제하는 총 익찬상황에서 개헌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혁명당을 탄압하고 일체의 계급 투쟁을 진압하는 「축하」 강제로 5.1 노동절도 파괴한다는 것이다.

천황제는 차별주의·민족배외주의·선민사상으로 관철된 것이다. 천황제의 본질은 테러로 일체의 이론을 암살하는 폭력성에 있다. 과거 일제의 침략 전쟁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관철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지금도 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지배 계급은 천황제를 반혁명적 결집의 상징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청년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전쟁은 할 수 없다.

현재의 「상징 천황제」는 이전의 천황제 국가가 드러낸 폭력에 비하면 극히 파산적인 형태이다. 그것은 전후 혁명의 파도가 강제하고, 더하여 1989~90년 아키히토 천황으로 대가 바뀔 때 도로치바를 선두로 한 국철결전이 고양되어 혁공동과 노동자 민중이 혼신의 반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 앞에 천황제는 무력하다. 개헌과 천황제를 하나로 보고 노동운동의 폭발로 반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후 혁명 패배와 헌법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노동자 인민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베는 일관되게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내걸고 있다. 「전후 체제」란 제2차 대전 후 미군 점령 체제에서 형성된 전후 헌법 체제의 총체를 가리키고 그 심장부에 현행 헌법 9조가 있다.

일본 헌법은 전후 혁명의 패배의 결과 태어난 패전 직후부터 노동처럼 일어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일체를 붕괴 직전으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배 계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에서부터의 민주혁명」으로 간신히 타협을 했다. 그 카드가 신헌법

제정이며 핵심은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였다. 그 대신 천황제는 「상징 천황제」으로 모습을 바꾸어 연명했다. 헌법 9조는 천황과 일제를 지킨 「피뢰침」이었다. 일본 공산당의 배신도 있어서 전후 혁명은 진압되어 인민의 파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수습됐다.

일제 지배계급은 전후 일관되게 개헌을 노려 왔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일본과 아시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개헌을 막아 왔다. 이 역학관계를 돌파한 것이 1980년대의 나카소네 정권이다. 국철 분할민영화로 국철 노동운동을 해체하고 노동조합을 깨부수어 헌법을 바꾸려 했다. 도로치바만이 단결을 지키고 파업으로 투쟁하며 국철투쟁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것이 아직도 개헌을 불허하는 힘의 바탕이다.

18년에 본격화되는 개헌저지 결선은 본질적으로는 「개헌이냐 호헌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개헌=전쟁이냐 혁명이냐」의 결착밖에 없다. 전후 혁명의 패배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호헌」의식과도 결부하여 이번에는 전쟁과 빈곤의 원흉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혁명에서 승리하자.

노조 파괴하는 전쟁 동원

아베는 전쟁 정책과 일체로 「노동형태 개혁」에 나섰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 한층 더 파로사와 저임금, 착취와 수탈의 강화를 가져온다. 청년을 평생 저임금·무권리의 비정규직에 몰아맨다. 노동 기본권과 8시간 노동제 등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쟁취해 온 획득물을 일소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공격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철저히 파괴·해체하고 노예 같은 상태에 빠뜨리고, 마지막은 전쟁에 총 동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베와 일제 부루주아지는 바닥 속까지 찍어 있다. 모리 토모, 가계 의욕, 리니어 신간선 비리는 그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자금과 국유 재산을 사유화한 아베는 「재정난」를 외치고 사회 보장 해체, 지방 해체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현재 코베 제강소를 시작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모두 품질 데이터 조작 등 비리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폭로되고 있다. 이는 일제 자본의 쇠퇴·붕괴의 상징이다. 모든 모순을 인원·임금 삭감과 노동 강화, 외주화로 생산 현장에 떠넘겨 온 결과다.

아베는 「노동형태 개혁」 공격을 「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 올림픽이야말로 후쿠시마를 내버리고, 피폭과 귀환의 강요, 청년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의 철저한 희생 위에 성립되는 「부루주아지의 축제」이다. 올림픽 자체가 아베의 개헌 공격 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있다. 노동자 인민의 분노로 분쇄하다.

천황에 굴복한 공산당

일본 공산당 스탈린주의는 천황제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천황을 모시는 사회주의”를 떠벌이고 있다.

「전쟁 전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일체의 권한을 쥐고 있던 절대 주의적 천황제와 달리 현행 헌법 아래의 천황 제도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주주의적 변혁과 사회주의적 변혁의 걸림돌이 안 됩니다. 천황 제도도 포함하여 현행 헌법을 엄격히 지킨다는 것이 일본 공산당의 생각입니다.」(공산당 부위원장·이치다 타다요시의 트위터, 17년 12월 5일).

공산당의 반혁명적 본질은 노동자계급의 사회 변혁의 힘을 부정하고 그 투쟁을 멸시하는데 있다. 개헌 저지 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은 파탄 난 「야당 공동 투쟁」을 계속하여 외치며 「호헌」을 「입헌주의」로 바꾸고 개헌 저지 투쟁에서 도망하였다. 「야당 공동 투쟁」은 「반 아베」이면 개헌파하고도 야합하여 선거에 협력하는 것이 본질로서 개헌 결사반대의 투쟁을 「통일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 공동 투쟁」과 세트인 공산당의 「국민연합정부」 구상에서는 공산당이 들어간 정부는 미군과 공동으로 자위대를 활용하겠다고 명언하고 있다. 공산당은, 필요하면 미일 안보를 발동하여 무력행사=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보도 자위대도 미군 기지도 무력행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산당이 개헌 반대 세력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공산당은 전쟁 반대가 아니라 전쟁 찬성의 당이다. 이는 한반도침략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자세와도 하나이다.

공산당을 뛰어넘어 타도하고 개헌 저지 결전을 폭발시키자. 렌고를 타도하고 파업으로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되살려 싸우자.

혁명적 선거 투쟁 관철

개헌 저지 결전의 주력은 노동운동과 학생 운동이며, 노동조합과 학생 자치회를 재건하고 공고한 대중적 기반을 만들었을 때 투쟁은 막대한 규모로 발전한다. 한국처럼 노동자계급 투쟁을 축으로 전 인민이 쫓기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는 공모죄 형태의 치안 탄압을 쳐부수는 것, 혁명적 선거 투쟁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후 최대의 계급 결전으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하여 개헌 저지 결전에 나서자.

특히 혁명적 선거 투쟁의 의의는 중대하다. 혁명적 선거 투쟁은 혁명당에 의한 전면적인 정치 폭로 투쟁을 통하여 1 천만 노동자 인민과 결합하여 전 계급 · 전 인민의 혁명적인 자각과 정치적인 쫓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불러일으키는 투쟁이다. 중의원 선거를 치러낸 지평을 바탕으로 개헌 저지 결전의 폭발을 주시하면서 19년 4월 통일 지방 선거-7월 참의원 선거에 전략적 준비를 추진하자.

제 4 장 국철 결전 관철하여 렌고를 타도하고 개헌 · 전쟁 저지 대행진의 깃발을

(1) 레닌의 「세 개의 의무」를 현대 혁명에 적용하여 투쟁하자

인류 최초의 세계 전쟁이 유럽과 세계를 뒤덮고 있던 1915년, 레닌은 『제 2 인터내셔널의 붕괴』에 「모든 사회주의자의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혁명적 정세가 존재하는 것을 대중 앞에 밝히고, 그것의 폭과 깊이를 설명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자각과 혁명적 결의를 일깨우고, 프롤레타리아트를 도와 혁명적 행동에 옮기고, 이 방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혁명적 정세에 따른 조직을 만들」 것을 제기했다.

제 2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국제조직이 전쟁에 찬성하여 붕괴하는 가운데 혁명당은 전쟁의 원흉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① 전쟁의 본질을 광범위하게 폭로, 선전 · 선동하고, ② 노동자 인민을 구체적 행동을 일으키고, ③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당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 개의 의무」를 제기했다.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이와 몹시 흡사하다. 제국주의의 모순이 개헌 · 한반도침략전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제 1 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17년 러시아 혁명의 승리에 이르는 레닌의 투쟁을 우리 자신의 현재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 가지의 전장에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거점을 전국 · 전 산별에 무수히 만들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대 발전을 쟁취하는 것. 이와 하나로 전국의 대학에 투쟁하는 학생 자치회를 되살리고 학생 운동의 대폭발을 조성하는 것. 둘째, 국경을 초월한 국제연대 투쟁을 더욱 확대하는 것. 셋째, 전시 하의 탄압을 되받아쳐서 비합법 · 비공연 체제를 가진 혁명당을 만드는 것. 이들을 통해서 파업과 혁명의 길을 현실에 열어가는 것이다.

혁공동은 개헌저지 결전에 본격적인 돌입에 있어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이야말로 그 선두에 설 것을 호소한다. 노동자계급은 자기 자신과 전체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직장에서 자본의 전제지배를 무찌르고 일상적인 직장투쟁을 불굴의 의지로 싸워나감과 동시에 전쟁 저지와 같은 전 인민의 미래가 걸린 정치 투쟁에도 그 최선두에서 최대의 책임세력으로

로서 쫓겨갈 것이다.

11·5 노동자집회 개헌저지 1만 명 대행진과 12·17 히비야 집회·긴자데모는 그 출발점이다. 노동조합이 축이 되어 투쟁하는 모든 단체·개인이 총 결집하는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을 만들자. 3월 25일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다시 한 번 대 집회를 쟁취하자.

7.1 국철집회에 총 결집하자.

8월 5일에는 히로시마에서 한반도전쟁·핵전쟁 절대 저지의 국제 반전 대 집회가 열린다. 이 모임을 11월 노동자집회와 함께 18년 최대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말 그대로 국제 연대의 힘으로 전쟁을 저지하는 대 투쟁을 벌이자. 8·6 히로시마 - 8·9 나가사키 반전반핵 투쟁과도 연동하는 투쟁으로서 승리하자.

(2) 아베의 노동대개약 분쇄에 도로총연합을 선두로 총궐기를

개헌 공격과 함께 올해는 아베의 노동대개약 분쇄, 대량 고용 중지=해고 공격과의 대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렌고는 이 공격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 렌고는 노동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자본가에 매수되어 자본가의 공격을 돕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UA 쟈센(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서비스일반노동조합연맹, 172만 명)이다. 렌고 조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UA 쟈센은 노동법 개악도, 징병제도, 개헌도 찬성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면서 그 분노를 억눌러 자본에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렌고는 1987년의 국철분할·민영화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째로 개헌 찬성 세력으로 하기 위해서 89년에 만들어졌다. UA 쟈센은 부루주아지의 뜻을 받고 이 10년간에 급증하고 있는 제국주의 노동운동이다. 그러나 전쟁과 빈곤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가 렌고를 직격하여, 렌고 회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UA 쟈센의 책동은 파탄이 났다. 그리고 역으로 렌고 붕괴·분열 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배 계급은 노동조합 간부는 매수할 수 있지만 전체 노동자는 매수할 수 없다. 렌고를 타도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를 만들자.

도로치마 - 도로총연합의 투쟁은 외주화 저지·비정규직 철폐의 과업으로 노동자 지배의 근간을 쳐부수어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는 대량 해고와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노동자의 총 반란의 결집 축이 되고 있다. 또 도로미토의 피폭노동거부 투쟁과 도로총연합의 전국 건설은 큰 주목을 받으며 각지에서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강제과건무효확인소송에서 초반동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자본의 취업규칙을 만능화하고 「과건에 본인 동의는 필요 없다」 「위장 청부했다

고 해도 합법」이라고 단언했다. 아베의 「노동형태 개혁」의 선행이다.

자본과 유착하여 외주화·비정규직화를 진행하는 JR 총련 카쿠마루를 타도하고 도로총연합이 JR 노동운동의 주류파=다수파로 뛰어나가자. 10.10. 판결을 분쇄하고 「제3의 분할·민영화」로 전면 분사화를 노리는 JR의 3월 운행 개정을 저지하자. 신칸센 대형 사고는 반 합리화·운전 보안 투쟁의 의의를 선명하게 했다. 도로총연합을 바탕으로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의 재건과 새로운 발전을 쟁취하여 JR 체제 타도 공격을 해나가자. 조합 죽이기 공격에 파업으로 투쟁하여 승리하는 간사이나마콘 지부와 굳게 연대하고 3노조 공동투쟁 강화·발전을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결정적이다. 올해 3월 말 노동계약법상 「5년째에 무기고용으로 전환」의 룰 아래에서 그 직전에 대량의 고용중지=해고 공격이 450만 명의 유기고용 노동자를 덮치고 있다. 대형 자동차업체 8곳은 이미 렌고의 용인으로 최장 4년 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9월에는 또한, 파견 노동자 130만 명이 대량 해고의 공격에 노출된다. 노동자 고용을 토막내어 단결을 파괴하고 「평생 비정규」으로 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로치바는 JR 동일본의 자회사로 차량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CTS(치바 철도 서비스)가 피했던 비정규직을 일단 전원 해고·선별 재고용 공격과 대결하여 전원을 무기 전환시키는 당면의 대승리를 쟁취했다. 도로도쿄 야시오지부의 투쟁도 결정적이다. 이 도로총연합의 전진과 하나로 합동·일반노조전국협의회의 압도적인 전진과 조직 확대를 쟁취하자. 전 산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근본적인 쫓겨난 것을 만들어 내는 정규·비정규의 단결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에 돌진하자.

코이케와의 결전을 관철하자

아베와 하나되어 노동자를 습격하고 있는 것이 도쿄도지사·코이케다.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코이케는 츠키지 시장의 토요스 이전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업계 간부만으로 「18년 10월 이전 합의」를 내질러서 이전 날짜를 결정했지만 도매업자를 선두로 한 현장의 분노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츠키지에서 일하는 동지들이다. 절대 반대의 단결과 행동으로 토요스 이전은 반드시 분쇄할 수 있다.

토요스의 오염은 해결 불능이며, 추가 공사를 해도 무해화할 수도 없다. 지하수위는 내려가지 않고, 고농도 독극물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토요스 이전은 20년 올림픽과도 일체의 공격이다. 한편, 올림픽 도로와 주차장 건설 계획도 파탄에 몰리고 있다.

아베와 농림수산성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매시장법의 폐지를 노리고 있다. 중개를 배제하고 민간 참여를 인정하여 공설도매시장 해체의 길을 여는 것이다. 시장민영화 결사반대! 코이케를 내세워 환상을 부추기는 일본공산당을 뛰어넘어 올해를 토요스 이전의 숨통을 끊는 해로 만들자.

또한 코이케는 도영교통, 수도, 교육, 보육원, 병원 등 도쿄도 전체의 민영화와 도로렌 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쿄(동경교통) 민영화 저지로 도로렌 노동자의 쫓겨나기를 쟁취하고, 도청 레스토랑 해고철회 투쟁을 더 한층 확대하여 코이케를 몰아붙여 타도하자.

(3) 전국에 학생자치회를 건설하여 개헌저지 대학 총파업을

2018년은 학생운동의 대도약의 해이다.

첫째로, 개헌저지 대학 총파업을 실현하는 학생 자치회를 전국에 건설하자. 이것이 전국 학생운동의 최대의 방침이다. 개헌·한반도침략전쟁을 캠퍼스에서의 파업 결의로 저지하자. 대학 파업은 ① 부르주아법적 「보호」 일체로부터 해방된 학생의 단결에만 의거한 실력 행동이며, ② 수업을 정지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이며, ③ 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세계를 변혁하는 기개 가득한 쟁취이며, ④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파업과 연동하여 계급투쟁의 중요한 일익이 된다.

둘째로, 그 「진원지」로서의 교토대 학생운동을 발전시키자. 교토대학 당국이 외치는 「시설 관리권」을 분쇄하자. 「시설 관리권」을 내걸고 학생자치 파괴와 권리박탈이야말로 대학 당국이 자본과 결탁하고 교육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토대학 투쟁은 부르주아적인 노골적인 공격과 대결하여 처부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셋째로,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결하는 단결 형태로서의 「학생 자치회」론을 대중적 실천 속에서 굳게 다지자. 전원가맹제의 대중적 기반을 최대의 특징으로 하는 학생 자치회는 ① 전쟁과 교육 반동화에 대한 투쟁이며, ② 권리 파괴-자치 해체를 용납하지 않는 단결체이며, ③ 신자유주의에 의한 인간적 유대의 해체와 싸우는 공동체이다.

넷째로, 국가 권력과의 격돌에서 이겨나가자. 재작년 전학련 대회 습격에 대한 고소 국가 배상청구소송이 권력을 몰아붙이고 있다. 피고인 공안경찰과 도쿄도는 추궁에서 도망치고 증거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 투쟁은 치안탄압-공모죄 적용 책동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전진』과 기관지 『중핵』을 활용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 중핵과의 비약적 확대를 실현하자.

(4) 전 인민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 호시노 동지를 반드시 탈환하자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 탈환을 둘러싼 투쟁은 국가 권력과의 치열한 공방에 들어섰다. 재심 투쟁의 전진으로 호시노 동지의 결백을 밝히고 모든 증거의 개시를 요구하며 도쿄고등 법원·도쿄고등검찰청을 몰아붙이는 지평 위에 지난해 7월부터 시코쿠 지방 갱생보호위원회와의 투쟁을 개시했다. 전국에서 전개되는 회화전의 힘, 전 인민적으로 확대되는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요망서」가 일제·갱생보호위를 압박하고 있다. 43년의 투옥과 30년간의 하옥은 혁명에 공포를 느끼는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전쟁·개헌저지 투쟁과 일체로 국가범죄의 전모를 파헤쳐 호시노 동지를 탈환하자.

46년간 날조 지명수배와의 투쟁을 관철한 오오사카 마사아키 동지는 호시노 동지와 단결하여 옥중 투쟁·재판 투쟁에 용약 내딛고 있다. 오사카 동지는 무고다. 호시노 동지와 같이 물증은 전무, 시위 참가 학생 5명의 날조된 「진술 조서」만이 「증거」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즉시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오사카 동지와 변호인단을 선두로 호시노 재심 투쟁과 일체로 71년 오키나와 투쟁에 걸린 정치적 탄압을 폭로하여 호시노 동지와 오사카 동지를 탈환하자. 「범인 은닉」 날조와 투쟁하는 스즈키 테츠야 동지를 탈환하자. 공모죄 탄압을 쳐부수고 모든 옥중 동지를 탈환하자.

국철 분할·민영화와 일체의 신자유주의 공격이었다. 「사법 개혁」과 투쟁하는 변호사 전선은 전쟁·개헌 공격이 본격화된 오늘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혁명적 선거 투쟁의 선두에서 싸우는 전면적 정치 폭로의 투쟁의 선두에서 있다. 공모죄 탄압으로 격화되는 치안 공격을 최선두에서 쳐부수고 있다. 투쟁하는 변호사의 불굴의 거점을 굳게다져 전쟁·개헌 공격과 대결하자.

(5) 산리즈카·후쿠시마·오키나와의 투쟁하는 전 전선에서 승리를 개척하자

■ 산리즈카

한반도침략전쟁 저지·군사공항 분쇄의 산리즈카 투쟁의 위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대동맹은 지난해 대법원의 시토 타카오씨의 농지수용 결정에 대하여 결전본부를 구성하고 임전태세를 굳게다져 청구이의 재판에 적을 끌어들여 강제집행 책동을 정지시켰다. 제

3 환주로 건설=공항기능강화 책동에 반대 동맹의 일체 행동은 공항회사에 대한 주변 주민의 분노의 쉼기를 이끌어냈다. 고 키타하라 코오지 사무국장의 유지를 이어 지금이야말로 농지 수용과 공항기능강화 방안을 분쇄하고 아베 타도에 공격해나가자.

시토씨의 농지강탈 공격을 불허하는 진형을 구축하자. 노동조합·학생자치회를 주축으로 두터운 지원의 고리를 넓히자. 강제집행반대 서명을 모아 심리중단 책동을 분쇄하고 제 3 환주로 건설 저지에 주변 주민과 함께 투쟁하자. 공항 노동자와의 연대를 구축하자. 전국 농민회의의 확대를 쟁취하자. 노농 연대를 확대하여 4·1 산리즈카 현지전국집회에 청년과 학생을 선두로 한 거대한 대열을 등장시키자.

■ 후쿠시마

아베 정권은 20년의 「부흥 올림픽」을 빌미로 연간 20미리 시베르트를 기준으로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 「자주 피난자」 지원 중단, 갑상선 검사 축소 책동 등 「후쿠시마의 분노」의 압살을 노리고 거세게 덮쳐오고 있다. 그 침병이 JR 동일본의 조반선 연장이자. 18년 3·11 반원전후쿠시마행동은 이와 전면 대결하며 「고향을 되돌려내라」의 분노를 하나로 하여 아베를 타도하는 투쟁이었다.

도로미토의 조반선연장 저지·피폭노동거부 투쟁은 후쿠시마 현지와 이재민의 투쟁과 결합되었고, 원전 노동자들과도 결합되어 3·11 후쿠시마 투쟁, 원전반대 투쟁으로 전국 노동조합과 주민을 크게 결집시키는 획기적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투쟁을 더욱더 강력히 추진하여 도로미토 도로후쿠시마를 선두로 노동조합이 중심에 서서 전 인민을 결집하고 후쿠시마 버리기·원전 재가동과 싸울 일대 정치 투쟁을 만들어 내자.

후쿠시마의 분노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반대 투쟁과 그 거점에 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비롯한 지역 거점·노동조합 거점에서의 파괴 공격을 용납하지 않고, 피폭과 귀환강제반대 서명운동과 피난·보양·의료의 보장을 실현하는 투쟁을 거대한 대중운동으로서 성공시키자. 3·11 코리야마에 대결집하여 올림픽 분쇄·아베 타도의 1천명 결의를 실현시키자.

■ 오키나와

나하시의 오스프레이 추락으로부터 딱 1년이 된 지난해 12월 후텐마기지 소속 미군 헬기에서 무게 약 8키로의 창틀이 후텐마 제2초등학교 교정에 낙하하는 충격적 사고가 일어났다. 한반도침략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오키나와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투쟁은 국제 연대와 파업으로 한반도침략전쟁을 막고, 개헌 공격을 무찌르는 최선두의 투쟁이다. 이 투쟁이 「기지의 섬」 「비정규직의 섬」을 뿌리부터 변혁한다. 위기와 파산이 깊어지고 있는 오나가 현의 행정과 〈올 오키나와〉를 뛰어넘어 투쟁하자. 그

핵심은 일본 공산당 스탈린주의와의 대결이다.

일본 IBM 비즈니스서비스 노조와 오키나와대학 학생자치회가 열어나가고 있는 지평에서 기지 노동자를 선두로 오키나와 전도 파업으로 전략적 배치에 들어가자. 오키나와 투쟁과 호시노 동지·오사카 동지의 투쟁은 하나다. 「복귀」 46년 5·15 오키나와 투쟁을 한반도 전쟁 저지 국제연대 투쟁으로 폭발시키자.

■ 여러 전선

출입국관리체제반대 투쟁, 부락해방 투쟁, 여성해방 투쟁, 장애인해방 투쟁, 피폭피해자 해방 투쟁, 주 본토 오키나와 전선, 농민 전선 등 여러 전선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에의 차별·분단 공격을 현장에서 쳐부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한 단결의 강화·발전을 이루어내는 투쟁으로 지난해 큰 전진을 쟁취했다. 부락해방 투쟁에 있어서의 「차별=분단」론의 확립은 그 무기가 되었다.

혁명에 공포를 느낀 일제는 개헌 공격에서 차별·분단지배의 강화에 더욱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계급성을 상실한 기성의 운동단체를 공갈과 회유로 끌어들이는 한편 투쟁하는 자에게는 흉폭성을 드러내서 덤벼들고 있다. 전쟁 상황에서의 제일·체일 노동자 인민에 대한 배외주의 습격이나 치안 탄압 심화, 우에키단지의 주택 강제퇴거·부락의 공동화 공격은 그 일환이다. 이들과 대결하여 지구당의 힘으로 지역에 불굴의 투쟁의 거점을 세우자. 3·8 국제여성데이 투쟁에 총궐기하자.

반군 투쟁의 대전진을

전쟁·개헌 정세 아래에서 군복을 입은 노동자인 자위대 병사의 불안이 일제에 대한 분노의 폭발로 분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병사의 부대 내 반란이야말로 노동자 파업과 함께 전쟁을 자국정부 타도로 전환하는 결정적 힘이다. 반군 투쟁을 강화하자. 이케다 재판 투쟁의 승리를 향해 싸우자.

제5장 공모죄 탄압을 되받아쳐 투쟁하는 불굴의 노동자 혁명당 건설을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투쟁 속에서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 낸다. 혁명당은 「노동자계급 그 자체」로서 노동자의 투쟁에서 배우고, 그 분노를 구현하여 혁명 승리에 책임을 진다. 혁공동은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되살리고, 국제 연대 투쟁을 확대하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비합법, 비공연 체제를 확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모든 노동자 여러분, 청년·학생 여러분. 혁공동과 함께 결집해서 함께 투쟁하자!

혁공동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투쟁하는 당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비 화해적인 계급 대립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계급 대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의 권력을 수립하여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혁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아래에 단결하여 투쟁을 관철해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손에 권력을 쥐고 사회를 운영하는 능력을 몸에 익힌다. 노동운동에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힘이 있다. 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멸시하는 것이 스탈린주의이다. 혁공동은 개개의 노동자의 인간 존재를 중시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의 힘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투쟁하여 왔다.

혁공동은 또한 「전쟁이나 혁명이나」의 역사 선택에 직면한 정세를 맞은 가운데 당의 비합법·비공연 체제 확립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 인민의 협력과 권기를 호소한다. 비합법, 비공연 체제는, 제국주의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혁명에 승리하는 투쟁에 필요한 모든 힘을 만들어 내는 절대적 조건이다.

일제 국가 권력은 장기 투옥이나 지명 수배, 날조 탄압과 스파이 공작으로 혁공동을 파괴하려고 해왔다. 그것들을 되받아쳐 당과 운동을 지켜왔던 토대에는 비합법, 비공연의 조직 건설이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향하는 노동조합과 학생 자치회 건설의 토대로서도 비합법, 비공연의 당의 건설이 필수 불가결하다. 비합법, 비공연 체제는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힘의 결집으로 만들어 진다. 노동자 인민과 깊고 넓은 연결, 계급의 에너지와 강하게 결합되어 혁명을 실현할 가치 창조적 투쟁이 여기에 있다. 계급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며 직장 세포를 기축으로 한 지구당을 건설하는 가운데 비합법, 비공연의 당 건설을 전진시키자.

개헌·전쟁 저지의 결전에 승리하고 총파업과 혁명을 잡아끄는 최대의 무기는 전국적 정치신문을 축으로 한 전면적 정치 폭로의 선전·선동이다. 기관지 활동의 대 비약을 쟁취하고, 중의원 선거에서 개척한 선전·선동의 변혁을 발전시켜 직장·캠퍼스에서 정면으로 혁명을 호소하자. 현장 노동자·학생 대중의 문제의식과 고투와 맞물려 공감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을 형성하자. 『전진』 10만부 배포망을 만들자.

혁공동은 「청년·학생의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학생 가운데에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학생에게 신자유주의의 모든 모순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을 두려움 없이, 더 넓고 대담하게, 더 대담하게 넓은, 다시 한 번 대담하게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는 전시다. 청년이, 학생이, 그 이상으로 청년 노동자가, 투쟁

전체의 결말을 결정할 것이다.....모든 혁명적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맹렬한 속도로 통합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안 된다. 그들의 훈련 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미경험과 미숙함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레닌 「아·아·보구다노프와 에스·이·구세프에의 편지」, 1905년 레닌 전집 제8권). 혁명의 주인공인 청년·학생 여러분, 혁공동에 결집하자.

혁명당의 힘과 단결은 지도부에 규정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자와 동지의 존재·투쟁에 절대적 신뢰를 두고 부르주아적 가치관·인간관과는 전혀 다른 노동자계급의 윤리와 철학을 구현하여 어디까지든 조직과 계급에 의거해서 투쟁하는 지도부 집단을 청년·학생에서 대량으로 조직해내자.

마지막으로, 호시노 후미아키 동지, 오오사카 마사아키 동지 소가메 히로시 동지, 이타가키 히로시 동지, 스즈키 테츠야 동지 및 조작 탄압과 투쟁하는 모든 옥중 동지에 열렬한 연대 인사를 보낸다. 혁공동은 모든 탄압을 쳐부수고 동지를 탈환할 것이다. 격동의 2018년을 함께 투쟁하여 세계 혁명의 문을 열어젖히자!